

[45] 손기정 일장기 삭제...펜으로 싸운 독립운동가 송진우 [광주전남독립운동 현장]

이건상 기자 입력 2025. 11. 25. 15:38

[담양 송진우 고택]

담양 손곡마을 생가서 의병장 기삼연 만나 민족주의 체득
일본 유학 후 중앙학교 인수 교육에 매진 '3.1운동 배후'
출옥 후 언론인 변신...동아일보 사장 취임 물산장려 등 전개
편집국서 주도 사진 흐릿하게 처리...기자들 11명 검거 고문
"모든 책임은 사장" 사태 80일만에 사장 사임서 제출



전남 담양 금성면 대곡리의 송진우 옛집 / 이건상 기자

1936년 8월 9일 밤 11시 2분, 현지시간 오후 3시 2분이었다. 히틀러의 야심작, 베를린 올림픽의 하일라이트 마라톤 경기가 출발 직전이였다. 각국 대표선수 56명이 출발선에 섰다. 거기에 식민지 조선의 청년 손기정과 순천출신 남승룡도 심호흡을 하며 출발 총성을 기다렸다. 손기정은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 최근 1~2년 사이 열린 마라톤 대회를 휩쓸며 비공인 세계신기록 보유자였다.

마침내 2시간 여 레이스가 펼쳐졌다. 베를린 스타디움에 아시아 청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조선 청년, 그러나 가슴이 일장기를 새긴 손기정이 2시간 29분 19초의 신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마라톤 우승의 순간, 일본과 한반도는 들썩였다. 시상대에 선 손기정은 침울했다. 월계수 묘목으로 유니폼의 일장기를 가린 듯 했다. 식민지 조선의 아들이었기에 그는 일본 국기를 달았다. 며칠 뒤, 8월 13일자 '조선중앙일보'는 조간4면 우측하단에, '동아일보'는 조간1판 지방판 2면과 7면에 시상대에 선 손기정과 남승룡 사진을 실었다. 손기정의 유니폼 일장기는 흐릿했다. 사진이 워낙 조악한데다, 인쇄 기술도 떨어진 탓이려니 하고 다들 넘어갔다. 이 날의 사진사고는 단순한 인쇄 실수였을까.



담양 손곡리 고하 송진우 기념관.

#담양 손곡마을, 의병과 언론이 만나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손곡마을. 겨울 초임에 선 바람이 당산나무 가지를 스친다. 마을 어귀의 초가집이 고하 송진우의 생가다.

스승이었던 의병장 성재 기삼연이 숨어 지내던 집이기도 하다. 기삼연의 사랑채에 기거했다. 의병의 정신과 언론의 혼이 한 자리에 머무는, 근대사의 교차점이랄까. 1890년 손곡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의병장 품에서 자라며 위정척사와 도덕적 민족주의를 체득했다.

스승이 지어준 호 '고하(古下)'에는 '옛것을 근본으로 삼되, 낮은 곳에서 배우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1906년 창평 영학숙에서 신학문을 처음 접했다. 이곳에서 인촌 김성수를 처음 만났다.

그는 1908년 실력양성론의 입장에서 인촌과 함께 일본으로 유학했다. 세이소쿠 영어학교·긴조 중학교를 거쳐 와세다대학에 입학했다. 1910년 한일병합의 충격으로 학업을 포기한 채 귀국했다가 부친의 권유로 다시 일본에 건너가 1911년 메이지 대학 법과를 졸업했다.

도쿄 유학 중에 조선유학생연합 친목회 총무와 잡지 학지광(學之光)의 편집인을 역임했다. 고하는 특히 학지광 제3권 제1호에 기고한 '사상개혁론'에서 공자 교육의 타파를 주장하면서 '자유연애 고취, 실리교육, 과학실업' 등 당시 시대를 앞서가는 진보적 주장을 펼쳤다. 이 글은 당시 조선 유학생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고하는 유교적 보수주의를 넘어선 '근대적 자유민주주의자'였다.

1916년 귀국한 그는 인촌 김성수와 함께 중앙학교를 인수해 교감·교장을 맡았다. 그에게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다. "독립은 힘에서 나오며, 힘은 교육에서 비롯된다."

그는 1919년 3·1운동의 배후에서 천도교·기독교·불교 연대를 조율했다. 중앙학교 숙직실을 거점 삼아 선언서 인쇄와 배포망을 조정한 그는, 공식 명단에는 없었지만 실질적 민족대표였다.

고하는 3·1운동과 연루돼 내란죄, 보안법 위반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7개월의 옥고를 치른다. 이듬해 출옥했지만 한달만에 다시 담양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투옥과 석방을 거친 그는 결심한다. "이제 펜으로 싸울 때다."



1919년 3·1운동 후 서대문형무소에 구금된 송진우.

#동아일보 사장 취임 '신문은 국민의 교과서'

1920년 창간한 동아일보가 1921년 주식회사로 개편되자 제3대 사장에 취임했다. 그는 주주들에게 "민족지인 동아일보에 이익배당을 바라고 투자한 분은 없을 테니, 앞으로 험난한 경영에

대비하여 주주는 영원히 이익배당을 받지 않기로 하자"는 결의를 이끌어 냈다.

신문은 그에게 '언론사'가 아니라 '국민의 학교'였다. 1922년 사설에 '민립대학의 필요를 제창하노라'를 게재, 조선민립대학 설립운동에 불을 붙였다. 배움의 독립이었다. 일제는 이를 방해코자 1924년 경성제국대학을 개교했다. 2

3년에는 국산품 애용을 유도하고자 물산장려운동을 펼쳤다. 이는 소비의 독립이었다. 31년에는 여름방학 마다 브나로드 운동을 펼쳤다. 한글 깨우치기, 위생지식보급, 문화 및 생활개조, 농촌 참여 등 국민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손기정 일장기 말소사건 '편집의 저항'

고하 송진우는 동아일보 사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조선총독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일제의 감시와 간섭 속에 날마다 독립의 염원을 지면에 담아 내고자 했다. 1936년 8월24일, 동아일보 편집국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흘렸다.

지난 8월13일자에 손기정의 올림픽 마라톤 우승 사진을 게재했지만, 사진 해상도 너무 낮았다. 민족의 대영웅이자, 조선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손기정의 우승 사진을 다시 싣고자 했다.

운동부장 이길용이 마침내 '오사카 아사히 신문'에 실린 사진을 입수했다. 남선판(남선은 조선을 의미)과 조선서북판에 나갔던 사진이었다. 이 부장은 은밀하게 전속 삽화가이자 화가인 조사무원 이상범에게 사진 속 일장기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범은 원 사진에 흰 물감을 써서 일장기를 흐릿하게 지워냈다. (당시 경찰 조서 참조). 이날 오후 2시쯤 사회부 장용서 기자가 사진부실에 들어왔다. 대뜸 사진과장 신낙균과 서용호 사진부원에게 '확실하게 지우자'고 다그쳤다.

사회부인 장 기자가 사진비밀 작업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전히 미스터리다. 서 사진부원은 아연판의 손기정 사진 속 일장기를 청산가리 농액을 사용해 지워버렸다.

마지막으로 사진은 재판부 강대석 기자에게 넘어갔다. 일장기가 삭제된 그날의 사진은 윤전기를 돌아 전국에 배포됐다.

월계관 쓴 손기정 선수 사진 원본



일장기 지워진 8월 25일자 지면



손기정 우승을 다룬 사진 원본과 동아일보 지면 사진. 동아일보 제공

사장송진우를 비롯한 임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전에 직접 지시도 하지 않았다. 다만, 현장 기자들은 사장도,주필, 사회부장도 모두 용인해 줄 것이라 믿었다. 8월25일자 석간2판 2면에 일장기가 말소된 손기정의 우승 사진이 게재됐다. 그날 석간1판과 조간 8면에는 정상적인 사진이 나갔다. 유독, 석간 2판에서만 일장기가 사라졌다.

다음날 이상범, 이길용을 비롯한 동아일보 기자 11명이 연행됐다. 모진 고문이 자행됐다. 송진우 사장의 지시 여부를 캐물었다. 8월27일 오후 5시 송진우 사장은 경기도경찰부장실로 호출당했다. 경찰부장은 동아일보 정간명령서를 내밀었다.

동아 정간은 29일부터 1937년 6월2일까지 무려 9개월여에 달했다.1936년 11월11일 일장기 말소 사태 80여일만에 송진우 사장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날, 송진우는 단 한 줄의 사임서를 남겼다."모든 책임은 사장에게 있다."

동아일보는 끝내 1940년 강제 폐간됐다. 송진우는 그날 이후 해방된 날까지, 일제에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았다. 창씨개명, 신사참배, 전쟁독려 연설을 거부했다.

고하 송진우. 그는 해방된 조국에서 한 극우 청년의 총탄에 서거했다. 올해 순국 80주년이다.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펜으로 싸웠다.

고하는 3·1 운동 당시에는 배후에서 민족 대표로 투쟁하다 옥고를 치렀다. 일본 유학 후 실력양성론에 기운 그는 언론 활동을 독립운동의 무기로 삼았다. 1936년 '일장기 말소사건'은 그 절정이었다.

그 한 장의 사진은, 지워진 일장기보다 더 선명한 민족의 의지를 남겼다.

/이건상 기자 lgs@namdonews.com

위치: 전남 담양군 금성면 손곡길 12-1(송진우 고택)